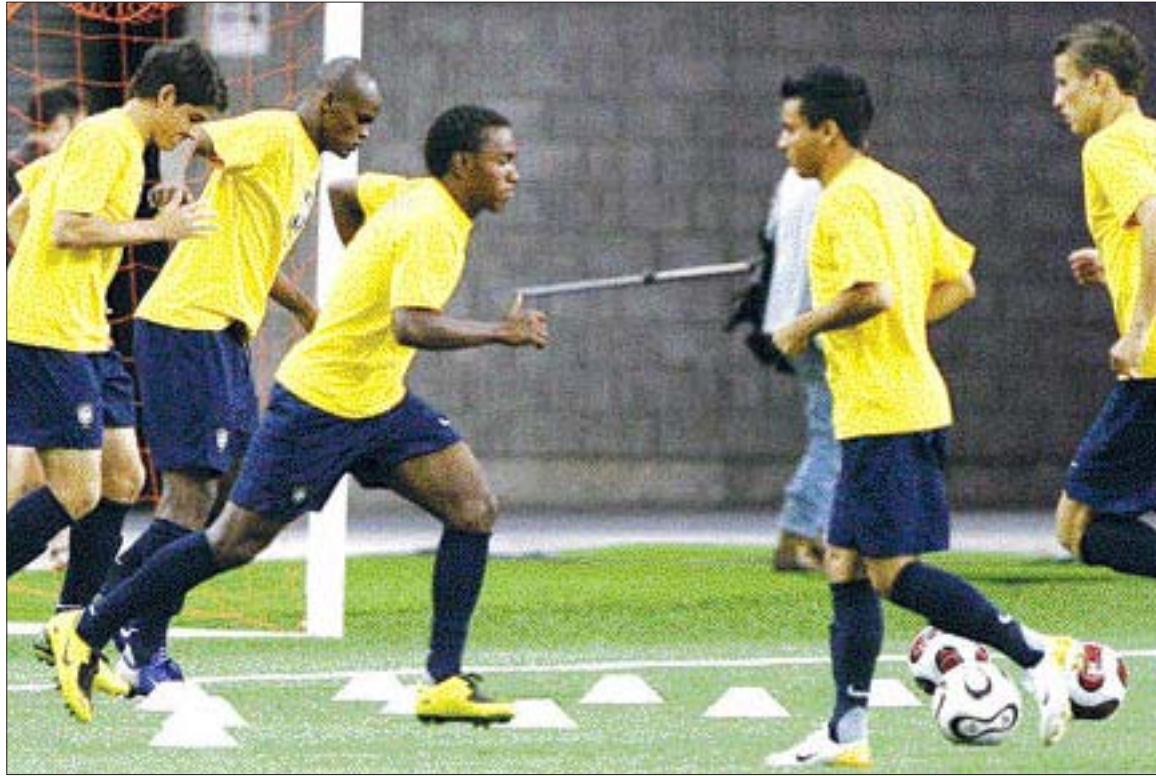


U-20 월드컵 축구 한국 vs 브라질 오늘 오전 8시45분



4일 오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세 이하(U-20) 월드컵 D조 2차전 경기에서 맞붙을 한국과 브라질의 청소년축구대표팀 선수들이 3일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발 뎀 박지성
맨유 훈련 합류

무릎수술 이후 국내에서 재활훈련을 해온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그동안 의지했던 목발을 떼고 영국으로 돌아왔다.
박지성은 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4일부터 시작되는 맨유의 프레시소 소집 훈련에 참가차 맨체스터로 향했다.
노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인천 공항에 도착한 박지성은 아버지 박성종 씨의 환송을 받으면서 출국장으로 이동했고, 출국장 혼잡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사진촬영만 하고 비행기에 올랐다.
4월 미국에서 무릎수술을 받은 이후 목발에 의존했던 박지성은 재활훈련의 성과가 좋아 이번엔 목발 없이 걸어서 영국으로 돌아왔다.
박지성은 8월 수술 부위에 대한 재검진을 받게 되며 회복 경과에 따라 그라운드 복귀 시점이 정해질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심영성·신영록 '삼바군단 격파' 선봉

MF 박주호·신광훈 "브라질 측면돌파 봉쇄" 다짐

'멕시코 4강 신화 재현'에 나선 한국 20세 이하(U-20) 청소년축구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 브라질 격파에 도전한다.
청소년대표팀은 4일 오전 8시45분(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에서 브라질과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2007 조별리그 D조 2차전을 벌인다.
1차전에서 미국과 좋은 경기를 펼쳤고 1-1로 비겼던 한국이나 폴란드에 0-1로 패해 자존심을 구긴 브라질이나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한 판이다.
한국은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서 브라질과 역대 다섯 차례 만나 모두 패했다.
역대 U-20 대표팀(U-19 포함) 대결에서는 모두 8차례 싸워 1승7패를 기록중이다. 2004년 부산에서 열린 4개국 친선대회 때 박주호의 골로 1-0으로 이긴 게 유일한 승리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FIFA 주관대회에서 '삼바군단'을 꺾은 적도 아직 없다.
브라질전을 앞두고 3일 오전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최종 훈련을 지휘한 조동현 감독은 일단 "브라질전 선발 라인업은 미국전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사냥의 선봉에는 미국전에서 동점골을 터트린 신영록(수원)이 심영성(제주)과 투톱으로 나선다. 미드필드진에는 김동석(서울)과 이상호(울산), 이청용(서울) 배치될 전망이다.
조 감독은 "미드필더들의 공격 가담은 조심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미드필더 3명이 거의 나란히 서서 최종 수비라인과 간격을 좁혀 수비 안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좌, 우 미드필더에는 주장 박주호(송실대)와 신광훈(포항)이 변함없이 선발 출전해 브라질의 측면 돌파를 봉쇄할 예정이다.
스리백 라인에는 최철순(전북)을 중심으로 기성용(서울)과 배승진(요코하마FC)이 좌·우에 배치되고 골문은 김진현(동국대)이 지킨다.
양팀의 세트 플레이 맞대결도 관심사다.
한국과 맞대결을 앞둔 브라질은 3일 최종 훈련에서는 수비 훈련 없이 패스, 슈팅, 중앙 및 측면 돌파 등 오로지 공격에 초점이 맞춰졌다.
폴란드와 1차전을 무득점으로 끝내 체면을 구긴 탓도 있지만 한국이 수비 위주로 나올 것에 대비한 득점 대책 중 하나다.
아크 부근에서 직접 프리킥 시 인발은 미드필더 지 파라나(인터나시오날), 오른발은 수비수 에두아르두(코린티안스)가 각을 담당했다.
키커가 옆으로 공을 밀어줘 제2의 키커가 때리거나 수비벽 뒤로 돌아들어 가는 선수에게 연결해 해결하는 훈련도 했다.
한국 대표팀도 이날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지막 훈련에서 세트 플레이 훈련을 잠시 했다. 하지만 이는 상대의 프리킥이 키커가 인발잡이나 오른발잡이냐에 따라 수비벽을 쌓는 선수들의 위치를 숙지하는 것이 주였다.
조동현 감독은 또 위험 지역에서 불필요한 반칙을 경계하면서 선수들에게 한 발 빠른 위치선정을 강조했다.
최종 훈련 후 조 감독은 "1무의 우리나 1패의 브라질이나 똑같은 입장이라 생각한다"면서 "수비를 견고히 하면서 상대 공격을 차단한 뒤 속공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FIFA, 태극호 '공격듀오'에 큰 관심



심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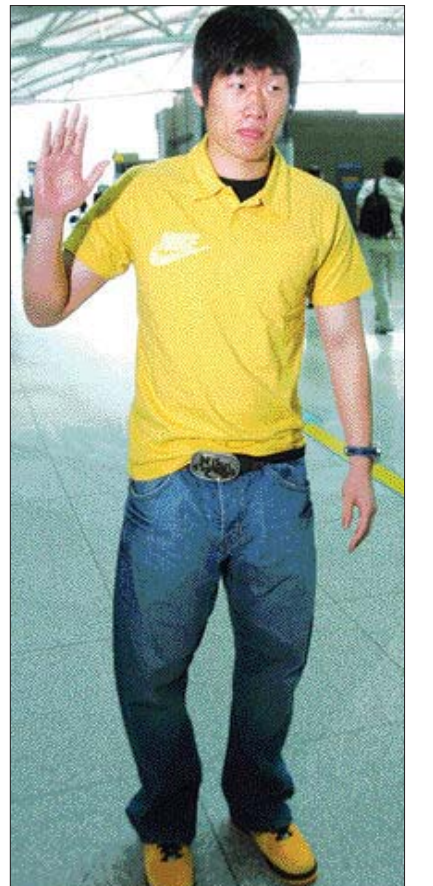
신영록

"눈 감고도 서로 찾을 수 있는 찰떡궁합"

"한국팀은 기름칠 잘된 기계"

국제축구연맹(FIFA)도 한국 20세 이하(U-20)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S라인 공격 듀오 심영성(20·제주)과 신영록(20·수원)의 활약에 주목했다.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FIFA U-20 월드컵 2007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린 FIFA는 3일(이하 한국시간) 심영성, 신영록과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비중있게 실었다.
이제 겨우 한 경기를 치렀을 뿐이지만 FIFA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그 어떤 팀 보다 나은 최상의 축구를 했다. 미국과 1차전에서 한국은 최고 수준의 움직임과 전술적인 영리함, 스피드를 보여줬다"고 조동현호에 극찬을 보냈다.
이어 한국 대표팀을 '기름칠이 잘된 기계'로 표현하며 "그 중심에는 심영성과 신영록이라는 두 명의 키 플레이어어가 있다"고 밝혔다.
FIFA는 "하나가 불을 제공하면 하나는 마무리를 짓는다"면서 "대표팀에서 3년 간 함께 해 온 이들은 그라운드에서 눈을 감고도 서로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을 정도"라고 심영성과 신영록의 '찰떡궁합'을 소개했다.
FIFA는 이미 이번 대회를 앞두고 참가국 프로파일에서 심영성을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로 알린 바 있다.
FIFA는 "미국전에서 잘 싸우고도 비겨 결코 만족하지 못할 법 하지만 심영성과 신영록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며 공격수로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둘의 아쉬움과 실망, 그리고 브라질과 2차전을 앞두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모습, 공격 파트너로서 서로에 대한 애정 등도 자세히 전했다.
또 미국전에서 경기를 앞두고도 수 차례 득점 기회를 놓치며 비긴 데 대해 "한국이 소모적이었고 말하는 게 옳지만 유기적으로 잘 짜인 3-5-2 시스템은 미국 수비수들에게는 악몽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경기가 열린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은 2002 한·일 월드컵을 연상하게 했다"면서 "경기장이 떠나갈 듯 '한국'을 연호했던 열띤 응원 5년 전 A대표팀이 같은 상대(미국)를 맞아 조별리그를 지켰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고 전했다.



지난 시즌 막바지 무릎 부상으로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국내에서 재활중이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3일 오후 그동안 짊어졌던 목발을 벗어 버리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안컵 출전 베어백호 8명

'태극기 축구화' 신고 뿜다

2007 아시안컵축구 본선(7월7일~29일, 동남아 4개국)에 출전할 베어백호 태극전사 8명이 태극기가 그려진 축구화를 신고 뿜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코리아는 조재진(시미즈), 엄기훈(전북), 최성국, 김두현, 김상식(이상 성남), 이호



(제니트), 김진규, 김치우(이상 전남) 등 자사가 후원하는 축구 국가대표 8명을 위해 태극기가 그려진 축구화를 특별 제작해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축구화에는 태극기와 함께 영문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각 선수별 몸무게에 의한 압력과 습관적인 움직임 등 플레이 스타일을 참찬 장비로 측정해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이 축구화는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우즈베키스탄과 최종 평가전에서 선보인다.

■ 브라질은 어떤 팀

U-20 월드컵 '단골 챔피언'...파투 '경계 1호'

폴란드와 1차전에서 불의의 일격(0-1 패)을 당해 독이 오른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함께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단골 챔피언'이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서 1979년을 제외하고 모두 본선에 올랐으며 아르헨티나의 5회 우승에 못지 않은 4차례 우승을 비롯해 준우승 2회, 3위 3회를 차지하는 등 9차례나 3위 이상 입상했다.
올 1월 지역예선을 겸한 남미선수권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아르헨티나, 칠레와 각각 2-2로 비겼지만 뒤늦게 발동이 걸려 3승2무로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4-4-2 포메이션을 쓰지만 좌·우 윙백, 특히 왼쪽 마르셀루(레알 마드리드)의 오버래핑이 적극적이다.
좌·우 날개 해나투 아우구스투(플라멩고)와 레안드로 리마(상 카테뉴)가 중앙으로 간격을 좁혀 들어오며 1선에서 떨어뜨리거나 흘러 나오는 공을 노린다.
지난해 FIFA 클럽 월드컵 우승을 경험한 알레산드레 파투(인터나시오날)는 지역예선에서 5골을 기록하는 등



기술이 좋고 지능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브라질 대표팀의 요주의 인물이다.
파투와 투톱을 이루는 장신(189cm 76kg)의 공격수 조(러시아 CSKA 모스크바)도 슈팅이나 제공권 장악 능력이 좋아 경계를 늦출 수 있다.
주장인 중앙 미드필더 지 파라나(인터나시오날)는 공수 조율 능력 및 인발 킥이 빼어나 프리킥을 전담한다.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벨손 호드리게스(42) 감독은 오랫동안 골수부들을 발굴, 육성해왔다.
1989년 브라질 클럽 포르투게사의 유소년 지도자로 시작해 리비아에서도 성공적인 지도자 생활을 해 브라질 프로팀으로부터 꾸준한 영입 제의를 받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